

석사학위논문

이 시대를 사는 법

- G. B. Hinckley의 *Way to Be!* 번역논문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지현

2003년 12월

이 시대를 사는 법

지도교수 김 재 원

김 지 현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3년 12월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김지현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추인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심사 위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3년 12월

Way to Be!

Ji-hyun Kim

(Supervised by Professor Jae-wo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 2003

<서언>

나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인생은 미식 축구와 흡사하다. 내게도 그런 쓰라린 개인적 경험이 있지만, 경기장에서는 8만여 명의 팬들이 고함을 지르고 경기장 밖에서는 수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는 '월요 야간 축구(Monday Night Football)'에서 당신이 패스한 공이 상대방에게 가로채기를 당하면 매우 당황하고 의기소침해질 것이다. 군중의 야유소리가 당신의 킷전에 울리고, 팀 동료들은 자기들의 도시락을 훔쳐먹기라도 했다는 눈빛으로 당신을 쳐다볼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서 숨고 싶을 심정이 될 것이다.

그럴 때면 내가 실수했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러나 내 실수에 대해 얼마든지 변명할 수는 있다. 나를 쫓는 큰 체구의 상대 선수 때문에 다운필드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당신이 훌륭한 쿼터백 선수가 되길 원한다면 눈을 감고도 주저 없이 공을 패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공을 패스하기 전에 공을 받을 동료 선수를 보려고 한다면 그때는 이미 패스타임이 늦어버리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별을 쳐다보면서 군중들의 비웃음을 참는 후보 선수로 벤치에 앉아 있게 될 것이다.

이럴 때면 나는 보지 않고도 공을 패스할 수 있는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연습 시간과 많은 실전 경험의 축적, 그리고 코치의 조언만이 내가 언제, 어디로 공을 패스해야 하는가를 알게 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했다. 그리고 나는, 코치가 제시하는 훌륭한 쿼터백 선수가 되기 위한 기본 원리를 따라서 훈련을 해야만 내가

던지고자 하는 곳으로 공을 던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경기를 하게 될 때에도 우리가 패스한 공이 몇 번 상대방에게 뺏길 수 있는 것처럼 때로 몇 번의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종종 우리는 눈을 감고도 공을 던지고 있는 듯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우리를 지도하고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는 훌륭한 코치와 배운 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료가 있다면 우리는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법(Way to Be)’은 내가 전미프로축구리그에서 가졌던 어떤 경기 작전책보다도 훨씬 중요하다. 이 책이야말로 인생에서의 여러 가지 실수들을 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지혜롭고,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조언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경기가 매우 힘들고 팽팽할 때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가야 하는지를 잘 아는 뛰어난 코치가 경기장 밖에서 주문하는 작전 지시와도 같다.

고든 비 힌클리씨는 지혜롭고 정의로운 분이지만 꼭 그런 분만은 아니다. 그는 존경받는 세계적 종교 지도자이며, 나에게서는 현실을 일깨워주는 최고의 코치이다. 그의 조언은 우리가 인생의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근본적인 원리들을 강조하고 있다.

스티브 영

목 차

머리말	1
1. 첫째, 감사하라	7
2. 둘째, 지혜로워라	12
3. 셋째, 열중하라	17
4. 넷째, 깨끗이 하라	21
5. 다섯째, 충실하라	34
6. 여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43
7. 일곱째, 겸손하라	48
8. 여덟째,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54
9. 아홉째, 기도하라	57
맺음말	63
참고문헌	67

<머리말>

일찍이 지금과 같은 때는 없었다. 유사이래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때가 있었는가! 지금과 같은 젊은 세대도 없었다.

물론 지금도 문제는 많다.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중도 퇴학자, 불량자, 태만한 자와 낙오자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도 얼마든지 교화될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어하는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남녀들이 더욱 많이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세대”이다. 여러분은 과거의 세대보다 훨씬 더 제대로 교육을 받았고, 올바르게 행동하기를 갈망하고 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세상의 부패를 과감히 떨쳐 버리려고 애를 쓰고 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하고, 정말 훌륭하다. 나는 여러분들을 유사이래 가장 훌륭한 세대라고 굳게 믿고 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 선택받은 세대의 일원임을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러분이 가진 잠재력은 무한하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다스려갈 수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헛된 삶과 목표가 없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표류시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너무나 밝다.

나는 이제 나이 아흔을 넘어섰다. 나는 오랜 시절을 살아왔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남녀들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세대이다. 여러분들은 제각기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고 있으며, (미국이라는)하나의 큰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런 한편 여러분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문제를 갖고 있으며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개개인이기도 하다. 나는 여러분들을 매우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려운 결단들과 더불어 여러분들에게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아주 오래 전, 내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였다. 그때는 마약이나 포르노물 등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때 공부와 진로 문제에 대하여 고민했다. 그리고 그때는 심각한 경제 불황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먹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걱정하였다. 대학을 마치고 나는 영국으로 갔다. 기차를 타고 시카고까지 가서 버스로 갈아타고 시카고를 지나 뉴욕까지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영국 제도로 가는 증기선을 탔다. 시카고에서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한 여자 손님이 운전사에게 “저 앞의 빌딩은 뭐죠?”라고 물었고, 운전사는 “네, 저것은 시카고 상공 회의소 건물입니다. 매주마다,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살아 갈 희망을 잃어서 저 창문에서 뛰어내립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때는 그러하였다. 비참하고 험악했던 시대였다.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런 시대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진정으로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시대를 겪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어려운 시대를 겪으며 살아온 내 인생을 말해주기 위해 이 이야기를 언급할 뿐이고, 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미래에 무엇이 펼쳐져 있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어떤 것인지 안다.

지금 여러분은 성숙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턱 위에 있다. 여러분은 학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고, 결혼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주위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은 성공을 추구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더 없이 좋은 기회의 시대이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한 행운이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많은 기회와 도전으로 가득 찼던 때는 없었다. 나는 1910년에 태어났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과 다른 서양 국가 국민들의 평균 수명은 50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평균 수명이 75세를 넘어서고 있다.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기라도 했는가? 평균적으로 여러분은 1910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최소 25년을 더 오래 살고 있는 셈이 된다.

또한 지금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이다. 나의 유년기와 청년기에는 항생제가 없었다. 이런 놀라운 약들은 모두 최근에 발견되고 만들어졌다. 지구상에 존재했던 무시무시한 질병도 사라졌다. 천연두라는 질병이 전 세계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다. 그리고 소아마비가 모든 어머니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때도 있었다. 나도 그 당시 소아마비로 시골병원에 입원해 있던 누군가를 문병 갔던 일이 떠오르는데, 그 환자는 폐 속으로 공기를 펌프질하는 커다란 철제인공 심폐 장치에 의지하여 겨우 숨을 쉬고 있었다. 그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란 없었다. 자기 스스로 숨을 쉴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아내와 자식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러한 끔찍한 질병들은 거의 사라졌다. 이것도 또한 기적이다. 지금은 암이라는 질병이 수많은 의료연구센터들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머지 않아 그 병에 대한 치료법도 등장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도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세대들이 그런 도전에 맞서왔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직면해왔던 도전들 중에서 그래도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이 가장 극복하기 수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들은 놀랄 것이다. 매일 우리가 TV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해설가들과 비평가들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도전을 넘어서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나는, 그 선택받은 세대에 속한 여러분들이 그저 세상을 바라만 보고 있거나 목표 없이 흘러가도록 놔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힘과 용기가 필요하고, 이 세상을 구하고 더욱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가치관을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기회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갖게 될 가정과 지역 사회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조국의 미래가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젊다. 그리고 힘이 있다. 여러분은 마음 속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살아갈 날이 많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료와 친구들이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선하다. 그러나 그 “선(善)”이 선을 위한 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선이 되어야만 한다. 여러분

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뭔가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그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는 천년 후에도 우리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니, 백년 후에도 우리들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러분은 많은 문제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어둠과 악의 도전에 위협을 받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적당주의(適當主義)와 무관심(無關心)의 벽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해야만 한다. 여러분들은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며 옳은 일에 대해서는 옳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그 옛날 추억이 담긴 고등학교 졸업한 권을 주었다. 1928년 그 당시 같은 졸업반에 있던 친구들의 사진을 대충 훑어보는데도 한 시간이 걸렸다. 거기서 나는 내 남자친구들의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한때 젊고 똑똑했으며 힘이 넘쳤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몇 안 되는 친구들은 온 몸이 주름으로 가득한 채 기력 없이 걸어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여자 친구들의 얼굴도 보았다. 한때 매력적이었던 그녀들도 이제는 거의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살고 있다. 그러나 사실, 1928년도 높은 꿈과 이상을 가질 수 있는 시기였다.

그나마 살기 좋았던 때에는 우리에게도 꿈이 있었다. 그때 내 남자 친구들은 아직 올라가 보지 못한 산, 미래에 우리가 하게 될 일, 미래의 성공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가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꿈들을 꾸며 살았다. 그리고 내 여자 친구들은 어머니가 된다

는 것, 이 세상을 위하여 무엇인가 선한 일을 베풀고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따뜻한 여성이 되고자 하는 꿈들을 꾸며 살았다.

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았고, 70년 전에 나와 내 친구들이 우리 자신들을 발견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날 자신들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다고 확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는가?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많은 과목에서 A학점들을 받게 되길 원한다. 여러분들의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주고 그를 통해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학업 문제에서는 더 바랄 게 없기를 희망한다.

나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원하는 A학점을 다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몇 개의 B학점, 이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Ways to Be”(B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이 시대를 사는 법”을 몇 가지 가르쳐 주고 싶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도 A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B학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즉 이 시대를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을 뿐이다. 나는, 그 B학점(사는 법)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있고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여기서 내가 제시하는 사는 법들이란 내 인생을 통해서 얻게 된 방법들이며 이 방법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 사는 법들이란 9가지인데 아흔 인생을 살면서 얻어낸 아홉 가지 사는 법들이다. 이것들이야말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성공을 가져다주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첫째, 감사하라
둘째, 지혜로워라
셋째, 열중하라
넷째, 깨끗이 하라
다섯째, 충실하라
여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일곱째, 겸손하라
여덟째,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아홉째, 기도하라



첫째, 감사하라

영어에는 다른 모든 단어들보다 의미가 깊은 짝막한 두 단어가 있는데, 바로 “thank you(감사합니다)”이다. 다른 모든 언어에서도 이 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gracias*, *merci*, *danke*, *obrigado*, *domo* 등등이 그 예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매주 특정한 저녁시간을 정하여 그 시간만큼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 그 저녁 모임 시간에 우리는 서로의 장기를 자랑하는 등 많은 것들을 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서투른 연기자들이었는데, 우리들 가운데 누가 혼자서 노래를 부르던 모습은 마치 부엌 난로 위에 계속 앉아 있기 위하여 아이스크림을 구걸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깔깔 웃으면서 서로 서로 품을 냈고 장기자랑에 대해서도 우스꽝스럽게 서로 우쭐대는 말들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이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였다. 설령 우리의 음악적 재능이 매우 부족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가족은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부모님들은 굳게 믿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노래를 불렀고, 함께 기도를 했다. 어머니가 책을 읽어 주실 때는 조용히 들었고, 아버지가 자신의 추억담을 말해주실 때면 매우 흥미롭게 들었다. 아버지는 매우 이야기를 잘 하시는 분이였기 때문에 그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이야기 가운데 몇 가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꽤 나이를 먹은 소년과 그보다 나이가 어린 소년이 밭으로 난 길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걷다가 길가에 있는 낡은 코트 한 벌과 심하게 낡은 남자 신발 한 켤레를 보았고 저 멀리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주인을 보았습니다.

이때 어린 소년은 신발을 숨기고 숨어서 주인이 이 자리에 왔을 때 당혹해하는 그의 얼굴을 지켜보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든 소년은 그 제안에 흔쾌히 응하지 않았고 주인이 매우 가난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 다시 궁리를 한 후, 나이든 소년의 제안대로 다르게 해 보기로 하였고 신발을 숨기는 대신 은화 1달러(당시 통용되던 동전)를 각각의 신발에 넣고 주인이 그 돈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후에 주인은 밭에서 돌아와 코트를 입고 한쪽 발을 신발에 넣는 순간 딱딱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걸 느꼈고 그 발을 빼어보니 은화 동전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은 의아함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동전을 보고 또 보았고, 뒤를 돌아

다보고 아무도 보이지 않자 다른 한쪽 신발도 신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은화 동전이 있는 것을 보고 소스라치도록 놀라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감사의 기도를 올렸는데 병들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내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베풀어주신 은혜에 대하여 뜨겁게 감사를 드렸고 그에게 필요했던 도움을 준 이들에게도 하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소년들은 주인이 그 자리를 뜰 때까지 계속 숨어있었고 그 주인의 기도와 진실한 감사의 표현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소년들이 다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중 한 소년이 다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지 않나?”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브라이언트 힌클리, 빵만으로는 아닌, 북크래프트, 1955, 95페이지)

감사는 이처럼 매우 경이로운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정을 돈독히 해 준다. 그리고 감사는 우리를 보다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은 마음이 그만큼 닦여져 있다는 표시이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멀리하시는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멀리 하신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젊은 친구 여러분에 대한 나의 첫째 바램은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많은 기회들에 대하여 감사하라. 여러분에게 그토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여러분을 부양하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부

모님께 감사하라.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준 어머니와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하라.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위해 더 신경 써주시는 분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인생을 열어주기 위해 종종 자신들의 길을 비켜주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리고 아주머니와 삼촌께도 감사하다고 말하라.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농구를 하거나 실수로 꽃밭을 밟아도 이해해 주시는 이웃들에게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라.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주었거나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함을 표현하라. 그렇게 자주 자연스럽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은덕에 대하여 감사하라. 세익스피어는 “주여, 당신은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감사로 충만한 마음을 주셨습니다(헨리 6세, 2-1-1, (19-20)).”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그 위대한 가르침들에 대하여, 그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감사하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라. 그것들을 조용히 혼자 생각하면서 묵상에 잠겨보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예수 그리스도)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와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신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 여러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생님과 여러분들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스승님, 새로운 재능을 개발하거나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모저모로 가르쳐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해 주신 하나님

께 감사하라.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의 땅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지구 반 바퀴나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도 금방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통신의 발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저기로 쉽게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때인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위 사람들이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 전보다 더욱 행복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감사하는 마음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갖는 이러한 삶의 태도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과 혜택 그리고 기회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부여받은 재능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진실로 감사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가 된다.

감사하라.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과 재능과 혜택을 생각해 보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를 깨달아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많은 어려움들과 직면하게 될 것이다. 누구도 그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없다. 하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벽 구름 뒤에도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인생의 여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들에 직면하더라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겠지만 그 어려움들이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삶이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둘째, 지혜로워라

여러분들은 유사 이래 가장 경쟁이 치열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주변의 모든 것이 경쟁 속에 있다. 여러분들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그래야만 된다면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그 밖의 모든 것들도 포기해야 한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평가하여 그에 걸맞는 대가를 주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가치는 각자가 선택한 분야에서 얼마나 교육을 받았고 능력을 갖추었는가에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도하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몸과 마음을 수련시켜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탁월한 역량을 보이게 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 보람이 돌아가게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여러분들은 성실하고 능력을 갖춘 양심적인 능력가로 인정을 받게 될 것

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거나 속이지 말아야만 다른 사람들도 기만하거나 속이지 않게 된다.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단지 똑똑한 사람이거나 잘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다. 여기서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되라. 미래의 삶을 위하여 지혜롭게 여러분 자신을 수련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하여 현명하게 준비해야만 한다.

오래 전에 나는 콜로라도 덴버의 중앙청 철도회사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다. 그 때 나는 소위 전과 중계를 통한 운송 업무를 맡았었다. 그것은 모든 열차들이 탑승객들을 태우고 운행중일 때 하는 일이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뉴저지 뉴와크에서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열차가 도착했는데 수화물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00여명의 승객들이 짐을 잃어버렸다고 격렬히 항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즉시 나는 그 열차가 어디서 없어졌는가를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 열차가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정상적으로 짐을 싣고 출발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후 내가 일하는 솔트레이크시로 들어온 후, 덴버를 거쳐 푸에블로로 가서 거기서 선로가 바뀌면서 세인트루이스까지 오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곳에서 다른 철도 회사가 운행하는 열차가 그 열차를 뉴저지 뉴와크까지 운반하기로 되었는데, 세인트루이스 조차장에 있던 전철수가 경솔하게 조그마한 철 조각인 전철기를 3인치 정도 움직여 레버를 당김으로써 그 열차의 연결을 풀어놓았다. 결국 우리는 뉴저지 뉴와크로 가야 할 수화물차가 목적지에서 1500마일이나 떨어진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인트루이스 조차장에서 어느 부주의한 직원이 전철기를 3인치 정도 움직임으로써 그 열차는 잘못된 선로를 타기 시작했고 원래의 목적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었다.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을 꾸준히 가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에 이끌려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원래 목적지로 가는 길에서 벗어난 그러한 이탈이 짧은 거리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 길로 계속 가게 되면 엄청난 거리를 이탈하게 되어, 결국 우리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은 16피트 높이의 농장 문들 가운데 하나의 문에 시선을 집중하여 유심히 쳐다본 적이 있는가? 그런 문이 열릴 때 그 움직임은 매우 크다. 경첩 끝은 약간만 움직이지만 문 바깥 둘레의 움직임은 매우 큰 것이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대개 사소한 일들이 것이다.

지혜로워라.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도록 하라. 학교에서는 학생다운 학생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학교 교육에서 익힌 학습패턴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생동안 계속 새로운 지식을 갈망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은 없다.

교육은 능숙함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교육은 과거의 실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든다. 교육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서 가도록 한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은 교육을 통해서만이 빠른 속도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혜로 워라. 순간적이고 덧없는 쾌락을 위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고양시켜 줄 학교 교육을 소홀히 해서 안 된다. 인생에 대한 긴 안목을 갖도록 하라. 삶의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대단한 일을 하는 천재가 될 필요가 없다. 나름대로의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세상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사업가, 교수, 목수, 컴퓨터 프로그래머, 의사의 일을 선택하든 혹은 다른 명예로운 직업을 가지려고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질을 갖추는 것이다. 거리의 방랑자나 마약 중독자 혹은 중도 포기자가 되는 것은 쉽지만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건물이나 직업 뿐 아니라 인생을 만들어 가는 생산자나 건설자가 되는 것이 정말 해볼 만 하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모든 일에 완벽한 모범이 되셨던 예수는 이상적인 지적 성장을 보여 주었던 좋은 예이다. 어릴 때 성전 안에서 어른들을 가르치는 모습에서부터 구세주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수행하게 되기까지의 기간을 조명해 주는 몇몇 성서 구절들 가운데 하나를 보면, 예수가 “몸과 지혜가 날로 자라면서 하느님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누가복음 2:52).”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구세주일지라도 항상 지혜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여 지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혜로워라.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을 받을 때에만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외모와 태도 면에서도 지혜로워야만 한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패션 모델처럼 차려 입고 다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옷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하고 공손한 말씨를 써야 하고 예의 바르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옷차림새와 행동방식이 단정하지 못하다. 단정하지 않은 복장은 단정치 않은 생활 방식과 단정치 않은 사고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님은 항상 학생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그 당시에는 지저분한 모습이 용납되지 않았다. 남학생은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짧은 바지를 입었고 무릎 위까지 오는 긴 검은색 양말을 신었다. 양말은 면직물이어서 금방 닳았기 때문에 자주 꿰매어 신어야만 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등교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남학생들도 바느질하는 법을 알고 있어야만 했다.

나는 그런 시절이 이미 가버렸음을 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는 단정하고 깨끗한 생활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 그 후 나의 삶을 축복해 준 그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대해서도 항상 단정히 하고 깔끔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우리들의 큰 관심사의 영역에서도 그런 습관을 유지하게 된다.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이 단정하지 못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보여주듯이 단정한 외모는 그 사람의 능력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지혜로워야만 한다. 다른 사람들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통해서도 무엇인가를 배

워야 한다. 미래의 일에 대하여 항상 준비하고 배워라. 여러분들의 관심사나 선택 분야가 무엇이든 간에 마음을 수련하고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 일이 고장난 컴퓨터를 고치는 것이든, 결함이 있는 심장을 고치는 것이든 여러분은 먼저 자기 자신을 훈련시켜야 한다. 가능한 최선의 교육을 받도록 하라.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서 최상의 숙련공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에 대한 큰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다.

교육에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사실에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말라. 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셋째, 열중하라

내가 열중하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일에 열중하라는 말이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 스스로 자진해서 일을 하라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는 난로가 부엌과 거실에 하나씩 있었다. 그 후에 벽난로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추운 겨울밤이 되면 그 난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석탄을 많이 필요로 하였고 그 난로 안으로 석탄이 자동적으로 공급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밤 석탄을 삽질해서 벽난로에 넣어야 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때 그 벽난로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따뜻하게 지내고 싶으면 삽질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이었다.

아버지는, 일년 내내 일을 하여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자식

들에게 가르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여름 동안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과일 농장을 사셨다. 그래서 우리는 커다란 과수원을 갖게 되었는데, 봄이 되면 모든 나무들의 가지치기 작업을 해야만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주립농과대학 출신의 전문가가 가지치기 시범을 보이는 강연회에 데리고 가셨다. 우리는 거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2월에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 9월에 어떤 과일을 수확할 수 있는가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봄에 열심히 일하면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도 분명히 깨달았다. 봄에 우리의 일을 게을리 하면 가을 수확기에 고생스러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것보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일하는 것보다는 빈둥거리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같다. 때때로 잠깐씩 놀고, 잠깐씩 빈둥거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일이다. 금메달을 딴 선수와 1초 후에 결승점을 통과한 선수들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일과 노력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과 입는 옷, 우리가 사는 집과 우리가 받게 되는 학점 및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일인 것이다. 우리에게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공헌했는가를 느끼도록 해 주는 것도 일인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는 말 한 마리와 마차가 있었다. 그러던 1916년 어느 여름날,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번쩍번쩍 빛나는 검은색 신형 모델 포드차를 몰고

집으로 오셨던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포드는 대단한 차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투박하고 매우 다루기 어려운 차였다. 이를테면 그 차에는 자동 시동 장치가 없어서 크랭크를 돌려 시동을 걸어야만 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금방 크랭크를 돌려 시동을 거는 방법을 배웠다. 아마도 여러분이라면 크랭크를 느리게 돌려 시동이 걸리지 않았거나 크랭크가 되튀어 나와 손이 다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 차의 전등빛이었다. 그 차에는 축전기가 없었다. 유일한 전기는 마그네토라는 고압자석 발전기에서 얻었는데 그 마그네토의 발전력은 엔진의 속도에 의해 좌우되었다. 엔진의 속도가 빠르면 불빛이 밝았고, 엔진의 속도가 느리면 불빛은 희미한 노란색으로 변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면서 앞을 보려면 엔진의 속도를 빠르게 유지해야만 했던 것이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나는 이런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인생의 빛을 얻고자 한다면 두발로 서서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모든 본질은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 오랜 지구 역사의 기간은 석기시대, 불의 시대, 산업시대 등과 같은 시대로 구분되어 왔다. 혹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쾌락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실제로 유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쾌락을 위한 육체적 욕망을 만족시키는데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나는 오락을 반대하지 않는다. 일만 하고 놀지 않으면 바보가 된다. 그러나 놀이가 목적 그 자체가 되어 버리면 우리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나에게는, 이제 내가 린이라고 부르게 될 초등학교 친구가 있었

다. 그는 항상 말썽을 피우고 다녔다. 특히 봄이 되어 안보다는 밖의 자연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때가 되면 그 친구가 진지하게 수업에 열중하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항상 선생님의 골칫거리였다. 어느 날 11시경에 린이 수업시간에 소란을 피우자 선생님은 그 친구에게 교사실에 들어가 나오라고 말할 때까지 문을 닫고 있으라고 했다. 린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사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린은 선생님의 점심 도시락을 다 먹고 마지막 한 입을 먹으면서 선생님만 제외하고 우리 모두는 도저히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그 친구를 더욱 잘못되도록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린은 거의 일평생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 짓을 하며 보냈다. 그래서 그는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주어진 일에 마음을 쏟는 법도 몰랐고 일을 하는 법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일을 잘 해서 느끼는 성취감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흔히 사나운 북풍이 바이킹족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노동을 통해서만이 나라가 더욱 강해지고 도시가 더욱 아름다워지고 가족이 더욱 유대감을 갖게 되고 우리들의 삶도 더욱 건강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하고, 오래 전부터 인류가 해왔던 일을 대신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 이 세상에서 행하여졌던 모든 선행은 어떤 일을 마음을 두고 끝까지 일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꿈이 실현되는 것이다. 일은 걱정을 없애는 최고의 해독제이고 자포자기를 없애는 최고의 약이다. 일은 역동적인 성취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모습과 미래의 우리 모습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언서의 저자는 “당신은 자기 일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자만이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다(잠언서 22:29).”라고 말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열중하라. 좋은 일에 열중하라. 그리고 스스로 자진해서 일을 하라. 그래야만 그 일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깨끗이 하라

내가 어렸을 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석탄 난로로 난방을 했다. 그래서 검은 연기가 거의 모든 가정의 굴뚝에서 내뿜어 나왔다. 겨울이 가까이 오면 검은 연기와 먼지가 집 안팎 모든 곳에 가득했다. 이 무렵이 되면 우리가 매년 치르게 되는 연례 행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리 즐거운 행사는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 모든 식구가 나서서 해야되는 일이었는데, 바로 봄 대청소였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우리는 일주일 정도를 대청소 기간으로 정하였는데, 대개 한번의 공휴일과 두 번의 토요일이 끼어 있도록 하였다.

대청소가 시작되면 항상 어머니가 앞에 나섰다. 우리는 모든 커튼을 떼어내고 조심스럽게 세탁했다. 그런 후에 창문의 안팎을 닦았는데 2층 건물이어서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모든 벽에는 벽지가 붙어져 있었고 아버지는 그 때를 닦아내기 위하여 여러 통의 세제를 사고 오시곤 하였다. 그 세제는 빵 반죽처럼 보였는데 용기를 열어보면 예쁜 핑크 색이었다. 그 냄새가 묘했는데 상큼하고 신선한 향이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난다. 아버지와 함께 우

리 모두는 열심히 청소를 했다. 우리는 손에 반죽을 묻히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높은 천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래 벽까지 때를 닦아내었다. 벽지에서 묻어 나오는 때로 반죽은 금새 까맣게 변했다. 그것은 매우 힘들고 피곤한 일이었지만, 나중에 보면 마법과도 같았다. 청소를 한 후에 뒤로 물러서서 청소한 벽과 더러운 벽을 비교해 보면, 청소한 벽이 마법으로 닦인 것처럼 너무도 깨끗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카펫을 걷어내고 뒤뜰로 끌어내어 거기서 한 장씩 빨랫줄에 걸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카펫봉을 손에 쥐었는데 그것은 나무로 만들어진 손잡이에 가벼운 철 막대기를 달아서 만든 도구였다. 우리가 카펫을 때리자 먼지가 날렸고, 카펫에 남아있는 먼지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때려야만 했다. 우리는 이 일을 싫어했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결과에 너무 놀랐다. 집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모든 세상이 한결 깨끗해 보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깨끗할 때 더욱 좋게 보인다. 우리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그러하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더욱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았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도 지금도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았었다. 누군가가 수두나 홍역에 걸렸다고 진단을 받으면 의사는 지체 없이 시 보건 당국에 알렸고, 보건 당국자가 와서 앞 창문에 표지판을 세웠다. 이 표지판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 그 병이 천연두나 디프테리아이면 밝은 오렌지색 표지판이 세워지고 거기에 “이 곳에서 멀리 물러서시오” 라는 검은색 글자가 새겨졌다.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무엇이든 깨끗하면 좋게 보이고 기

분도 좋아지게 되지만, 깨끗하지 않으면 그것을 멀리 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들은 더러움과 추잡함으로 가득하고 악취가 풍기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나에게 무척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세계는 우리 주위에 흔하다. TV 화면 속에도 있고 영화 속에서도 있다. 통속적인 문학 속에도 있고 인터넷 속에도 있다. 그런 세계는 대중 가요의 가사 속에서도 있고 전화상의 대화 속에도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것을 보거나 들을 여유가 없으며, 치명적인 마약에 가까이 할 여유도 없다. 그런 것들을 멀리 하라. 그런 것들을 피하라. 전염병과 같은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파괴적인 방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사악한 말을 삼가 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시나이산에 천둥이 칠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출애굽기 20:7).”고 돌판에 글을 남기셨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무례한 태도로 전능자 하나님 혹은 그의 독생자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르는 것은 인간다운 모습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신성한 것들에 대하여 전혀 경외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성모독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교양이 없고 무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일 뿐이다.

나는,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책을 던지며 하루의 수업이 끝났다는 안도감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던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어머니는 그때 내가 한 말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욕실로 데리고 가셨고, 거기서 깨끗한 수건과 비누를 꺼내어서, 나에게 입을 벌리라

고 한 후 그 비누로 내 입을 씻으셨다. 나는 영문을 모른 채 엉엉 울면서 반항하였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한참동안을 거기 서 계시다가 “너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다시는 내게 들리지 않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그 비누의 맛은 끔찍했고, 정말 가혹한 벌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

나에게는 내가 매우 존경했던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여러 번 수술을 받았던 친구였다. 한번은 그가 수술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을 때 휠체어를 밀어주던 간호사가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불렀던 때가 있었다. 그때 마취상태에서 채 풀리지 않았던 그 친구는 힘겨운 목소리로 “제발,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남용한 그 이름은 바로 제 주님입니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엄숙한 침묵이 흘렀고, 그 간호사는 잠긴 목소리로 작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 교훈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이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친구를 원하고, 친구를 필요로 한다. 친구 없이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바로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인도해 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도 가까이 지내고 싶은 친구들은 매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친구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여러분의 호위병이 되어줄 것이고, 또 훗날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깨끗이 하라. 인성을 파괴하는 오락에 여러분의 시간이나 돈을 허

비하지 말라. 나는 많은 종류의 공연단들이 무대에 펼치는 추잡하고 외설적인 쇼에 대해 들어왔다. 여러 도시의 젊은이들이 그런 쇼들을 보기 위해서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얻고 있는가? 거기에는 그들을 건전하지 못하고 더러운 삶으로 이끌어 가는 유혹의 목소리들만이 있을 뿐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쓰레기 문화와 멀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며 여러분들에게 해악을 끼칠 뿐이다.

나는 우리 사회에 깊이 침투하여 교묘하게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 들게 하는 유행들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유행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의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유행이 오고 가는 것을 봐왔던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언급하고 싶은 유행 가운데 하나는 문신이다. 신체의 어느 부위에든 상관없이 팔과 다리, 심지어 얼굴과 목에까지 그려 넣은 문신은 정말 끔찍하다.

거의 온 몸에 그려 넣은 이 유행에 대하여 나는 무척 당혹스럽다. 어떤 창조물이 인간의 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는가? 조물주의 걸작품으로서 사람의 몸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가? 바울은 고린도서를 쓰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린도전서 3:16-17).”라고 말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이 신성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이 성전과 같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여러분은 피부에 사람과 동물과 글을 그려 넣으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손상시키고 싶은가? 더군다나, 그보다 훨씬 더 외설적인 그림과 글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손상시키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문신을 한다면 분명히 그 행동을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단언한다. 문신은 영구적인 것이다. 문신은 많은 돈을 들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그 문신을 지울 수 있다. 따라서 여러분이 문신을 한다면 아마도 남은 일생동안 그 문신을 몸에 한 채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문신이 언젠가 여러분에게 낭패감을 줄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문신을 금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유행은 귀고리와 몸의 또 다른 부분을 뚫어서 다는 고리이다. 이런 것들은 인간스럽지 않으며, 매력적이지도 않다. 젊은 남자들은 고리를 하지 않아야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좋은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젊은 여자들도 귀의 위아래를 뚫으며 여러 개의 고리를 할 필요가 없다. 얼굴과 머리카락이 지닌 자연미를 떨어뜨리는 금속을 여러 개 다는 것보다 한 쌍의 귀고리만을 한 것이 실제로 더욱 아름답다. 이런 유행들도 모두 여러분의 몸과 관련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차림새가 단정한 젊은 여자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여성이야말로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딸이다. 옷차림이 단정한 젊은 남자는 또 얼마나 멋있는가? 그런

남성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몸의 이곳 저곳에 문신이나 고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밖에도 우리의 깨끗함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수 년 동안 여러 번 아시아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60년대 초에는 많은 미군 병사들이 일본에 주둔해 있던 오키나와 섬을 자주 들르게 될 일이 있었다. 그 당시 일부 군인들은 차를 갖고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차들이 심하게 녹슬어 있었다. 범퍼와 창틀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차체의 페인트는 모두 색이 바랜 상태였다. 이런 현상들은 공기 중에 포함된 염분이 금속을 부식시켜 생겨난 결과였던 것이다.

외설문화도 바로 이와 다를 바 없다. 추잡한 외설은 부식성을 지닌 염분과 똑같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외설에 노출되면 그것은 여러분의 갑옷을 부식시킬 것이다. 여러분의 도덕,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자긍심을 부식시킬 것이다. 사람들에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 이러한 퇴폐물들을 만드는 제조업자들과 마케팅 담당자들은 그것들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인성이 부패해 가는 동안 많은 돈을 긁어모으고 있다. 이러한 퇴폐물 제작자와 납품업자는 그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가져다줄 광산을 열심히 파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만든 퇴폐물들은 인간 심리 기저의 말초 본능을 건드려 자극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파괴하게 되었고, 스스로의 자긍심을 잃게 되었으며,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많은 남성들은 외설물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자신들이 가게되었던 지뢰밭 정글길이 시작되고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음주나 마약 복용에 대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마저 이런 외설 문화에 대한 탐닉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 외설 문화는 연간 10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산업이 되었고, 거기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수 천명의 사람들을 그 희생자로 삼으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외설을 멀리하라. 그것은 처음에는 여러분의 흥미를 끌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각을 마비시켜 버릴 것이며 성과 사랑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왜곡시켜 버릴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짓을 해서라도 반드시 채우고자 하는 욕망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과 채팅 방을 통해서 모임을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런 것들도 여러분을 슬픔과 비탄의 구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서운 질병을 피하듯이 외설을 멀리해야 한다. 선정적인 외설물의 근원지 앞에는 아예 검은색 글자의 밝은 오렌지색 경고 표지판을 놓아두어라. 그렇지 않으면 해풍이 오키나와의 차들을 부식시켰듯이 외설물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도덕성을 파괴시킬 것이다. 외설물에 탐닉하여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것을 빠져나올 수 없다. 외설은 이미 여러분들을 노예 상태로 만들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약 또한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나는 어떤 마약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마약을 따라다니면 그것도 여러분의 인성을 파괴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약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이 마약의 손아귀에 잡혀있게 되면 더욱 더 많은 마약을 구입할 돈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마약중독자의 20퍼센트가 부모들이 그들 자녀에게 처음 마약을 권해 주면서 마약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매

우 놀랐다. 이런 사실이 단순히 그런 부모들의 어리석음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이런 부모들은, 자식들이 마약의 노예가 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대체 어떤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바랬단 말인가? 이처럼 불법 마약은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하여 버리는 것이다.

훌륭하고 젊은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절히 하고 싶은 충고는 마약에서 아주 멀리 떨어지라는 것이다. 한번 정도 복용해 보려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보면서 마약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보아라.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나쁜 습관에 젖게 하는 이러한 마약 중독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마약은 여러분의 재산, 여러분의 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꿈꾸어왔던 미래를 빼앗아 갈 것이다.

외설과 마약 그리고 술과 같이 습관성과 중독성이 강한 것들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 않으면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 것이다. “술에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다(잠언 23:21).”

술통 파티는 졸업 시즌에 큰 행사가 되었다. 과연 이것이 수년간의 학업 성취를 축하하는 최상의 방법인가? 맥주이든 포도주이든 위스키이든 술을 마시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될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술이 필요 없다. 여러분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다.

담배도 마찬가지로이다. 여러분에게 이로울 게 뭐가 있는가? 담배는 유혹의 손길을 뻗쳐 여러분을 노예로 만들 것이다. 흡연이 일단 습

관화되면 그것을 끊기가 어렵다. 의학 연구를 통해서도 흡연은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졌다. 흡연으로 인해 암과 기종 그밖에 고통스럽고 심각한 병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담배를 피우는 젊은 남녀를 볼 때마다 “저들은 깨닫지도 못하는가? 얼마나 어리석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인가?”라고 생각하게 된다. 흡연은 더러운 습관이다. 그것은 원상 회복이 가능한 성격의 습관이 아니다.

위험하고 현혹적이고 중독적인 이와 같은 행위들을 금하고 있는 수천 수백만의 젊은이들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한다. 아직도 많은 학생들은 최고의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서 학교 내 과외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은 신앙 생활을 하고 윤리와 도덕 규범을 준수하는 집안에서 자라난 이들이며 음주와 마약 복용이나 혼전 성 경험이 없는 학생들이다.

나는,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면서 군중 심리를 따르지 않는 자긍심을 지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에게 경하의 박수를 치고 싶다.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러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려는 사람들은 많다.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있으며 옳고 훌륭하고 깨끗한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젊은 남녀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혼하면서도 가장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말해 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가질 수 있는 성관계이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하고 가장 놀라운 것인데, 생존 욕구만이 그 본능을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평생을 역사 연구를 하면서 보낸 후에 윌과 아리엘 두런트는 “호르몬이 왕성한 젊은이들은 왜 자유롭게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해 하지만, 관습이나 도덕 혹은 법을 통해서 그 욕구가 규제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성이라는 것이 혼란 속에서 개인 및 단체를 태워 없애지 못하도록 100여 개의 구속책으로 독을 쌓고 식혀야 하는 불바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해지기도 전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인생을 파멸시키게 될지도 모른다(역사의 교훈, 시몬과 스튜어터, 1968, 35-36).”라고 쓰고 있다.

하나님은 위대한 창조목적을 위해서 남녀가 서로에게 매력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이러한 매력은 엄격한 통제 하에서 유지되지 않을 때 가루가 되어 버린다. 매력은 올바르게 다루어질 때 아름답다. 통제할 수 없게 되면 치명적인 것이 된다.

결혼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성행위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상대방에게서는 원상 복구될 수 없는 것을 빼앗게 된다. 그래서 소위 정복이라는 행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월계관을 쓰는 것도 아니고,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만족감을 가져다주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수치심, 슬픔, 후회 그리고 종종 질병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탐닉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빼앗게 될 뿐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표현이 매우 강하고 노골적인 것임을 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잘못된 성 풍조가 만연된 시대에는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린 나이에 연애하는 것, 어린 나이에 일찍 누군가와 연애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정적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의 사회적 활동을 훼방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어린 나이에 오랜 연애 기간을 갖게 되면 그것은 종종 비극으로 끝난다. 여러 연구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어린 남녀가 오래 사귄수록 그만큼 자제력을 잃고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결혼을 준비하게 될 때까지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서 사귀어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라, 그러나 서로 너무 친하게 지내려고 애쓰지 말라. 항상 스스로를 통제하라. 그것은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범죄는 말 그대로 죄이다. 우리 사회와 특히 마스크는 그러한 성을 매혹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부적당한 시간에, 부적당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항상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만든다. 그래서 갈라하드 기사는, “나의 마음은 순수하기 때문에 그 힘이 열 사람의 힘과 맞먹는다(알프레드, 테니스 경, 갈라하드 기사[1842], 1연).”라고 말을 한 바가 있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젊은 친구들이여, 여러분은 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잘 안다. 여러분들은 위험한 땅 위를 걷고 있을 때와 넘어져서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기 쉬운 때를 잘 알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늘 조심하기를 바라고, 떨어지기 쉬운 죄의 절벽에서 안전하게 뒤로 물러서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둡고 헛된 성범죄의 악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늘 순결에서 나오는 평화의 햇살 속에서 걸어가라.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정도를 벗어나 탈선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희망이 있고, 회개가 있다. 또한 용서가 있다. 그러한 과정들은 모두 기도로 시작된다.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짐을 하나님과 나누어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와도 나누어라. 여러분들이 정도를 벗어나서 죄를 짓게 되었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회개를 하게 된다면 건강한 삶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말했던 모든 점들을 하나로 묶어 말을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깨끗한 척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갖가지 유혹을 피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절제의 문제이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안다.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들처럼 감정적이고 육체적인 매력에 탐닉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깨끗이 하라. 모든 면에서 깨끗이 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려왔던 이상적인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 미래의 동반자를 위해서도 깨끗이 하라. 여러분들의 후대를 위해서도 깨끗이 하고, 여러분들의 자긍심을 위해서도 항상 깨끗이 하라.

이 세상에 순결만큼 고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퇴색되지 않는 빛을 낸다. 그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것은 값을 따질 수도 없고, 사거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자기 절제의 열매인 것이다.

깨끗함 속에서 기뻐하라. 세속적인 풍조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에 맛을 들여라. 그러면 여러분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충실하라

세익스피어가 말하기를, “네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그러면 밤이 낮을 따르듯 다른 사람에게도 충실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다(햄릿 1막 3장, 78-81줄).”라고 하였다.

중학교에 입학한 첫 해, 내게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다. 새 학교 건물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 건물에 들어가는 처음 학년이 되었지만, 그 건물이 그다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어린 학년이었던 우리 7학년은 1년 동안 다시 초등학교로 가 있게 되었다.

우리는 모욕감을 느꼈고, 너무 화가 났다. 우리는 이미 그 초등학교 건물에서 6년을 보냈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대접을 받고 싶었던 것이다. 이제 나이도 한 살을 더 먹었으니 “어린애들”이나 다니는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 갈 나이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국 방과 후에 남자아이들은 모여서 이런 대접을 그냥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수업을 거부함으로써 우리 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다음 날 우리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달리 갈 곳이 없었고,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물어 볼까봐 집에 있을 수도 없었다. 또한 그 때 우리는 수중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쇼를 보러 시내에 갈 엄두도 내지 못했고, 결석 학생을 조사하러 다니시는 클레이튼 주임 선생님의 눈에 뜨일까봐 공원에 갈 생각도 못했다. 우리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학교 담장 뒤에 숨어서 불건전한 얘기를 나누면

서 시간을 보낼 생각도 못했다. 마약이니 뭐니 하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이곳저곳을 배회하면서 하루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스텐스 교장 선생님은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학교 정문 앞에 서 계셨다. 그 당시 그 분의 행동은 그의 이름처럼 매우 엄했다. 교장 선생님은 직설적인 말씀을 몇 마디 하셨고, 그런 후에 부모님의 편지를 가져와야만 다시 학교에 등교할 수 있다고 하셨다. 학교에서 쫓겨나기는 그 때가 처음이었다. 교장 선생님은 수업 거부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책임 있는 시민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고 우리에게 불만이 있으면 교장실로 찾아와 함께 의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다.

그러고 나니 집에 가서 부모님의 편지를 받아오는 일이 문제였다.

그 때 정말 초조한 마음으로 집으로 걸어오던 내 모습이 지금도 떠오른다. 어머니는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그 전날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일을 말씀드렸고, 교장 선생님께 부모님 편지를 갖다 드려야만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편지를 쓰셨다. 매우 짧은 편지였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어머니로부터 받았던 가장 따끔한 질책이었다. 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스텐스 교장 선생님께,

어제 무단 결석한 제 아들 고돈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모르고 친구들을 따라갔던 본능적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편지에 사인을 하고 나에게 건네 주셨다.

나는 어머니가 쓰셨던 이 편지를 결코 잊을 수 없다. 그때 나는

우리가 저질렀던 행동을 주도했던 당사자였지만, 그 후부터는 절대 군중 심리에 이끌려 행동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다. 나는 매사 옳고 그름을 먼저 생각하면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옳다고 믿는 모든 일에 충실히 임하기로 결심했다.

그 후에도 나는 가끔씩 매우 곤란한 상황과 부딪히게 되었지만 그런 결심을 했던 덕분에 무수한 역경을 이겨내면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있었다. 그때의 그 결심으로 인하여 나는, 자칫 잘못 빠져들어서 최악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던 상황과, 아니면 그나마 다행스럽게 자긍심의 상처만을 남긴 채 지나갔을 상황들을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충실하라. 여러분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게 되었는가에 충실하라. 여러분을 길러주시고 돌봐주시는 부모님께 충실하라. 오늘의 여러분을 있게 하여 준 여러분의 조상에게 충실하라.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과 이 나라에 충실하라. 여러분들과 교우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에게 충실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실하라.

나의 고등학교 앨범에 한 젊은 여자의 사진이 있다. 그녀는 밝고 활달하며 아름다웠고, 매우 매력 있는 여자였다. 그러나 그녀의 인생은 ‘쾌락’이라는 하나의 짧은 단어로 압축될 수 있다. 그녀는 졸업할 수 있을 정도로만 공부를 하면서 밤마다 남자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춤추고 놀았다. 결국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술이 그녀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술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고, 그래서 결국 술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녀의 몸은 술의 유혹적인 손아귀에 꼼짝없이 잡히게 되었

고,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생은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사라지게 되었다.

그 앨범에는 또 다른 여자의 사진이 있다. 그녀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지만 건강하고, 눈이 반짝이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나 상냥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했다. 그리고 그녀는 왜 자기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었는데,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그녀는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친구였고, 언제 그 즐거움을 멈추고 다른 일에 집중해야 하는가도 잘 알고 있던 친구였다.

또 이런 남자 친구도 있었다. 그는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려웠다. 그는 갈색 종이 봉투에 점심을 싸 가지고 다녔다. 그는 시골 출신이었기 때문에 약간 촌스러운 모습이었고, 특별히 잘 생기거나 멋있는 모습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착한 학생이었고 스스로 목표를 세워 실천해 가는 친구였다. 그런데 그의 목표가 매우 높은 것이었기 때문에 때로 우리들에게는 달성하기 불가능한 목표로 보이기도 했다.

이런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다. 그때 사람들은 “그 남자는 그 여자의 무엇을 보았을까?”, 혹은 “그 여자는 그 남자의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수군거렸지만, 그들은 서로에게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을 보았던 것이다.

그들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다. 근검 절약을 하면서 살았지만 돈 벌기가 너무도 힘들었다. 남자는 대학원에 진학했다. 여자는 한동안 일을 계속 했고, 그 때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을 위하여 살았다. 그러면서 그들은 겨우 생계를 이어나갔고, 많은 세월이 지나 마침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

몇 년 전 내가 동부 지역에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오던 중이었다. 깊은 밤이었고, 거기서 나는 반쯤 어두워진 통로를 걸어가다가 한 여자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았다. 내가 다가서자 그녀는 잠에서 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이 아주 오래 전 고등학교 때 내가 알던 그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였음을 알았다. 그 때 그들은 노년에 접어들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남편이 동부 지역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거기서 개최되었던 큰 학회에서 남편이 전 세계 학자들로부터 매우 훌륭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공헌을 하며 살아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모든 면에서 그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정한 높은 꿈들을 이루어 내었다. 그들은 명예와 존경을 받고 있었으며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위하여 많은 공헌을 했다. 그들은 함께 그들의 꿈을 이루었고 또 각자 바라는 대로 각각의 꿈을 이루었던 것이다.

나는 내 자리로 돌아와 앉으면서 그 두 여자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한 여자의 삶은 그야말로 세 글자의 단어인 'FUN' 그 자체였다. 그녀의 삶에는 목표도 없었고, 안정도 없었고, 사회에 대한 공헌도 없었고 꿈도 없었던 것이다. 결국 불행과 고통, 좌절과 요절로 삶을 마감했던 것이다.

또 다른 여자의 삶은 매우 힘겨웠다. 그녀의 삶은 근검 절약하는 삶이었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고생하며 일하는 삶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학자로서의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던 몇 년간, 간단한 식사와 수수한 옷, 간소한 아파트 생활로 의식주 문제를 해결했던 삶이었다. 그런데 메마른 땅처럼 보이던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두 그루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고 만발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이 두 옛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조금 더 잘하기로, 조금 더 헌신하기로, 조금 더 높이 보기로, 조금 더 아내를 사랑하기로, 조금 더 아내를 도우면서 조금 더 아내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기로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

옳은 것을 행하는 것과, 옳고 바르다고 믿는 것에 충실하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1912년에 열렸던 월드시리즈 야구 경기가 떠오른다. 그 경기는 내가 겨우 두 살 때 열렸던 경기라서 지금 내 기억 속에는 없다. 나는 단지 그 경기에 대한 기사를 읽었을 뿐이다. 그 월드시리즈는 격렬했던 8번의 게임이 연달아서 열렸던 야구 경기였는데, 그 가운데 한 게임은 밤이 어두워져서 자정에 경기가 중단될 정도였다. 그 당시 경기장에는 전기 조명 장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월드시리즈의 마지막 게임에서 점수는 일대일 동점이고, 보스턴 레드 삭스 팀이 공격을 하고 뉴욕 자이언트 팀이 수비를 하던 상황이었다. 보스턴 팀의 타자가 플라이 볼(공중에 높이 뜬 공)을 쳤고 두 명의 뉴욕 팀 야수가 그 공을 잡기 위해 달렸다. 중견수 위치에 있던 프레드 스노드그래스가 자신이 공을 잡겠노라고 동료 선수에게 사인을 보냈다. 그는 낙하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였고 공은 그의 글러브 속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 순간 공이 그의 글러브를 빠져나오면서 땅으로 떨어져버린 것이었다. 관중석은 야유로 들끓었다. 성난 팬들은 그 실수를 믿을 수가 없었다. 다른 선수도 아닌 그 뛰어난 스노드그래스 선수가 그런 쉬운 공을 놓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그 전에 수백 개의 플라이 볼을 잡아냈었고, 이번 시리즈에만도 수십 번 좋은 수비를 펼쳤지만 그 때 그 중대한 순간에 공을 놓쳐버렸던 것이다. 그 실수 하나로 뉴욕 자이언트는

졌고, 레드 삭스팀은 시리즈의 우승을 거머쥐었던 것이다. 스노드그래스는 다음 시즌에도 계속 경기에 출장했고 그 후 9년 넘게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그러나 그는 86세까지 살게 되지만, 그 한번의 실수를 저지른 이후 62년 동안, 누군가에게 소개될 때마다 “아!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 그 플라이 볼을 놓쳤던 분이시군요.”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듣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일은 스포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일상 생활에서 일어난다.

자기 자신은 매우 공부를 잘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도 역시 기말고사를 잘 치루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낙제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 무사고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사라도 한 순간 방심하여 비극적인 교통 사고를 낼 수 있고,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신뢰를 받고 있는 직원도 유혹을 못 이겨 얼마 되지 않는 회사의 돈을 횡령하게 됨으로써 평생 지울 수 없는 오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매우 고상하게 살아온 인생 속에서도 파괴적이고, 악령 같은 도덕적 붕괴의 순간이 찾아들 수 있고 그 동안 참았던 화를 한꺼번에 터뜨리다가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해 왔던 우정을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공을 놓쳐 버렸던” 그 순간과 똑같다. 순간적으로 자기 스스로에게, 자신의 팀에 충실하지 못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 규범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현상들인 것이다.

그리스 아테네는 한때 전세계에서 가장 웅장하고 독특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다. 그 당시 아테네의 모든 젊은 남자들은 17살이 되면 다음과 같은 맹세를 했다.

우리는 부정하고 비겁한 행위를 함으로써 이 도시에 불명예를 가져오는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홀로이든 함께이든 이 도시의 이념과 신성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는 이 도시의 법을 숭상하고 준수할 것이며, 이 법을 무효화하거나 무시하려는 어른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의 법에 대한 숭상심을 고취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는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런 정신으로 이 도시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이며, 물려받았을 때보다도 더욱 웅장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물려 줄 것이다.

아테네의 젊은 청년들이 했던 이 엄숙한 서약이 아테네를 세계 문화의 수도로 만든 원리와 행동의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을 살고 있는 모든 젊은 남녀들도 이런 서약을 하고 지킨다면 우리의 조국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도시와 촌락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상상해보아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옳고 정당하고 정직한 일에 충실하라. 여러분들의 인성을 파괴시키는 것들에 대하여 맞서 싸워라.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이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의 고결함을 지켜가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자신감에 찬 목소리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의 확신에 찬 태도만이 저울추가 진실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여러분들이 물려받을 정신적 유산에 충실하라. 자식들을 매우 부당하게 다루는 부모님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비교적 드물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아버지만큼 여러분의 행복에 큰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모님들도 여러분 나이였던 때가 있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때 부모님들이 가졌던 문제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부모님들이 가끔 여러분을 구속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위험을 보기 때문이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라. 부모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부모님들의 그런 말씀을 잘 들어야만 훨씬 더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

항상 진실을 말함으로써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자신에게 충실하라.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라. 절대 남을 속이지 말라. 여러분은 의과 대학을 졸업했다고 속이는 의사에게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수술을 맡길 수 있겠는가? 속이기보다는 실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인 것이다.

진실에 충실하라. 자신들의 귀중한 이름을 값싸게 팔고 다니는 이들도 있다. 내가 받았던 발신인 불명의 편지들 중에는 수년 전 우리 집에 왔었다는 메모지와 함께 20달러 지폐가 들어있는 편지가 있었다. 그는, 우리 집에 왔었을 때 벨을 눌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문을 열어보면서 잠겨 있지 않음을 확인하고서는 들어가서 여기 저기를 살펴보다가 화장대 위에 놓인 20달러 지폐를 발견했던 것이다. 그는 그 돈을 갖고 들키지 않게 빠져 나왔고, 그 후 오랜 세월을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하다가 이제야 그 돈을 돌려준다는 것이었다.

그는 그 돈을 쓰는 동안에 살아가는 맛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 안타까운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지난 25년 간 끊임없는 양심의 가책으로 그가 받았을 고통을 짐작할 수 있었다. 돈을 돌려 줄 때까지 그의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충실하라. 여러분 자신의 신념에 충실하라.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올바른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 올바른 뜻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 성실하라. 정직하라. 충실하라.

여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나는 거의 매일 여러 개의 신문을 훑어본다. 나는 항상 세계 곳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한다. 그리고 나는 시간이 허락하면 TV와 라디오에 등장하는 논평가들의 말을 경청한다. 이러한 언론 논평가들은 매우 지적이고, 말과 글에 능통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 그들의 말하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고 남을 비하하는 식이다. 그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을 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들은, 사실을 회화화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서로 서로들에 대하여 흠을 잡고 비방하면서 우리에게 인격을 말살하는 냉소라는 음식을 꾸준히 먹이고 있다. 그들은, 글을 쓰게 되거나 말을 하게 되는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의 약점만을 들춰내려고 하는 것 같다. 끊임없이 비난을 하면서도 칭찬은 거의 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칼럼 리스트나 논평가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 신문 편집자에게 오는 편지들만을 보

아도, 그 가운데 많은 글들이 독설로 가득 차있으며 이 세상의 미덕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 생활을 하면서 성실함을 갖춘 사람은 그 어느 곳에도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은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의와 성실로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증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증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만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한 증오심을 TV 시트콤에서 보고 있으며, 학교 복도에서 듣고 있으며, 서로 대화할 때에도 듣고 있다. 가정에서 어떤 아이들은, 부모들이 연속 퍼붓는 호된 꾸지람 소리에 낙심에 버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남을 헐뜯고 비웃고 넘어뜨리려는 말들이 대화의 핵심이 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서로의 인생과 선택에 대하여 흠을 잡고 험담하고 비난하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이제는 혼한 일상사의 모습이 되어버려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서로를 비난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다. 비난은 이혼으로 이끌고, 반항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때로는 실패를 낳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우리 모두가 인생의 폭풍우를 그만 만나고 태양 빛을 즐겨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 말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야 한다”는 뜻으로써, 상대의 좋은 면을 깊이 찾아보고, 모욕적이면서 남을 비꼬는 듯한 말을 삼가고, 서로의 미덕과 수고한 노력에 대하여 좀더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찾으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주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미덕을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비난을 삼가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우리

는 우리의 잘못을 바로 잡을 때 정신적인 성장을 하게 되고 회개할 때 힘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대화가 듣기 좋은 사탕발림 소리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더욱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젊은이가 진정 지혜로운 자인 것이다.

우리는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서 항상 좋은 면을 찾고,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서로의 미덕과 장점에 대하여 더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의 비판적인 사고를 낙관적인 사고로 바꾸고, 그런 긍정적인 신념으로 부정적인 두려움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내가 유년시절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흠을 잡는 말을 할 때마다, 지혜로우셨던 아버지는 종종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없고, 회의적인 사람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소원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 하셨다. 사실, 어느 누가 항상 불길한 말을 내뱉는 사람 주위에 있고 싶겠는가? 어느 누가 부정적인 음식을 계속 받아먹고 싶겠는가? 이와는 반대로, 밝은 면을 보는 긍정적인 말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제까지 90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나는 한가지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선한 사람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서 도전에 맞서 나갈 때 일이 항상 잘 풀려나간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일이 항상 잘 해결된다.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서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이 항상 잘 해결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예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2차 대전 중 영국의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다. 당시 1940년은, 폭탄이 런던 도시를 강타했던 절망의 시기로 독일의 전투기가 대부분의 유럽국가를 황폐화시키고 러시아로 이동해 가고 있던 때였다. 유럽은 이미 무서운

전제 정치의 손아귀에 넘어갔고, 영국이 그 다음 차례였다. 영국 국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지내고 있었던 이런 위험한 때에 처칠이 나타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

암흑의 시기라고 말하지 말고 힘든 시기라고 말합시다. 지금의 이때는 암흑의 시기가 아니라, 중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유사 이래 가장 중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이 시간들이 민족의 역사에 기념이 되도록 중요한 역할들을 맡아서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DUNKERQUE 전투의 패배라는 끔찍한 재앙이 있고 난 후에 영국의 종말이 예언되었다. 지금으로부터 60여년 전 그러한 암흑과 적막의 시기에, 처칠의 연설이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고, 나는 이 놀라운 사람의 연설을 듣게 되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도 싸울 것이고, 바다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공중에서도 점점 충천하는 사기와 자신감으로 싸울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든 반드시 우리나라를 수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안에서도 싸울 것이고, 지상에서도 싸울 것이고, 들판과 거리에서도 싸울 것이고, 언덕에서도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덩커크에서의 연설, 영국 하원, 1940년 6월 4일)

그 쓴 패배에서 영국을 구한 것은, 무서운 암흑의 시기에서 한 줄기의 밝은 태양 빛을 보게 한, 바로 이와 같은 처칠의 연설이었다.

몇 년 전 나는, 시드니 해리슨이 쓴 칼럼에서 시인 월터 스코트와 바이런이 둘 다 학교에서 문제아 학생이었다고 쓴 글을 읽었다.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말이 없어서 사람들은 그를 병어리로 생각했을 정도였고, 시인 번스와 보카치오는 학교 생활이 엉망이었으며, 훗날 카톨릭 신학자 중 가장 뛰어난 학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학교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으며, 아이작 뉴턴은 반에서 성적이 최하위였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후에 천재라고 칭송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서는 사람들로부터 과소 평가를 받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우리 누구도 그런 어려움을 피해 갈 수가 없다. 하지만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그런 어려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구름 뒤에 가려진 태양 빛을 찾아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다음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곡인데, 이 가사를 볼 때마다 나는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세상 풍파 밀려와
너를 흔들지라도,
너 낙심되어
네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도,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라.
하나씩 하나씩 불러보아라.
그러면 너는 놀랄 것이다.
주가 주신 축복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크든 작든
낙심하지 말아라.
주가 항상 있으니.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 보아라.
천사들이 함께 해 줄 것이다.
너를 도와주고 위로해 줄 것이다.
내가 가는 끝까지.
(“너의 축복을 세어라,” 찬송가 241번)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이 시대의 세태를 따라가지 말라. 이 세상의 어두운 면을 찾지 말고, 밝은 면을 찾아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본받을 만한 향기로운 것들, 올바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의 기도소리를 듣고 그것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믿어야만 한다.

일곱째, 겸손하라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나는 교회 선교사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영국에 파견되었고, 그곳에서 내가 처음 살았던 도시가 랭커셔 주도인 프레스턴였다. 그 당시는 경제 공황기여서 돈이 궁했

기 때문에 남자가 한 달에 50달러의 수입을 버는 직업을 갖고 있어도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래서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영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나에게, 영국으로 가는 것은 대단한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다. 나는 영국을 무척 좋아했지만, 그때 당시에 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동료 선교사와 나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고, 심지어 개가 우리를 쫓아와 짖어대기까지 하였다. 설상가상으로 나는, 시골의 무성한 풀밭에서 날리는 건초열 때문에 돌아다닐 때마다 눈물과 콧물이 흘러내려 무척 고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과는 관계없이, 내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사는 것이 가족에게는 무척 힘든 일임을 깨닫고, 나는 아버지께, 집에서 부쳐 주는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으니 원래 계획대로 2년을 여기 머물러 있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편지를 썼다.

곧 아버지로부터 답장이 왔다. 그것은 요점만 적힌 매우 짧은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고든아, 저번에 네가 보낸 편지 잘 받았다. 아버로서 너에게 한 가지만 얘기하겠다. 네 자신을 버리고 일을 하라.’

아버지의 편지를 받은 그 날, 나는 우연히 신약의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복음 10:39).”라는 구절을 읽게 되었다. 그때 내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무릎을 꿇고 나의 이기적인 태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편지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다. 내게 일어났던 좋은 일들만을 떠올리며, 내 자신을 버리고 남을 위하여 계속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겸손하라.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세상은 오만한 사람들로 가득 차있다. 그들은 얼마나 밋살스러운 사람들인가! 우리 삶에는 교만이 끼어 들 자리도, 기만이 끼어 들 자리도, 이기심이 끼어 들 자리도 없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만과 자만과 교만이 없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큰 것을 바랄 수 있을까?

나는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설사 그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훗날 매우 위대한 선행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70여 년 전, 대학 영어 시간에 다음과 같은 글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다.

인간은 참으로 걸작이 아닌가! 이성은 얼마나 고귀한가! 능력은 얼마나 무한한가! 생김새와 움직임은 얼마나 뛰어나고 훌륭한가! 행동은 얼마나 천사와 같은가! 판단은 얼마나 신과 같은가!

(햄릿 2막 2장 30-36줄)

햄릿의 이 대사는 매우 풍자적이다. 그러나 그 속에는 많은 진리가 담겨져 있다. 또한 이 대사 속에는 인간의 위대한 잠재 능력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의 다윗의 시와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나이까. 저희들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3-5)

이 위대한 시 속에는 우리 인간에 대한 경이로움이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그저 아무개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며, 여기저기 살고 있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신성함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러한 신성함과 능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겸손해야 한다. 겸손하라고 해서 약하게 행동하라는 것은 아니다. 겸손하라는 것은 뭔가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며, 짓밟히며 살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잘 인식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에 나는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어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일생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았다. 전에도 이 책을 읽어보았지만, 다시 한 번 읽어보니 그녀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켰던 이 위대한 영국 소녀에 대한 감탄의 마음과 존경심이 새로웠다.

그녀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파티와 춤을 즐기고 경마장을 다녔던 사교계의 예쁜 소녀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떤 것에도 삶의 의미를 느낄 수가 없었고, 부모는 그런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

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미 그녀의 큰 꿈은 병원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건강을 빨리 회복시켜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병원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 결혼도 하지 않았고, 오직 환자를 돌보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쳤으며, 후에 전문 간호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1854년에 영국은 크림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때 나이팅게일은 국가고위직급에 있던 친구들을 쫓아다니며 설득시켜서, 수 천명의 부상자들이 실려오는 스쿠타리 병원의 원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가 그곳에 가서 본 모습은 완전히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 오래된 낡은 창고를 병원으로 쓰고 있었고, 위생 상태는 아주 형편없었으며, 악취가 풍기고 고통의 비명 소리가 울리는 큰 병실은 부상당한 군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곳에서, 연약하게만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은 일에 몰두했다. 그녀의 전기 작가는 그때 그녀의 생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불굴의 용기와 지칠 줄 모르는 힘으로 밤낮 병상을 오가며 일을 하는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환자들은 그런 끊임없는 헌신의 힘으로도 그녀 혼자서는 그녀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낡은 병실 어느 곳에서든, 아픔의 고통들이 너무나 심해서 도움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 곳에 나이팅게일이 있었다는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리튼스트래치,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인생, 여행자 도서, 더블데이, 도란회사, 1934)

병상들은 그 사이를 오고 갈 공간도 없이 말 그대로 수 마일이나 뻗어 있는 듯 했다. 그러나 어쨌든 6개월이라는 기간동안에,

마침내 병실의 혼란과 압박은 끝났다, 병실 안은 이제 질서가 잡히게 되었고 깨끗해졌다. 물자는 풍부했고 신속히 공급되었다. 중요한 위생 작업도 모두 차근차근 이루어졌다. 그때의 통계 수치를 비교해보면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던 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치료 받은 환자의 사망률이 42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떨어졌었기 때문이다. (같은 책 1186페이지)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수 천명의 목숨을 구했으며, 희망이 없던 사람들도 희망을 갖고 살도록 해 주었다.

드디어 전쟁은 끝났고, 그녀는 영웅의 환대를 받으면서 런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모든 언론들도 그녀에게 찬사와 축하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런 찬사를 받고 싶지 않아서 신분을 숨기고 영국으로 돌아갔고, 그 후 그녀는 영국의 군사 병원과 민간 병원을 개선시키면서, 50년 동안 간호사로 계속 일을 하였던 것이다.

아마 세계 역사상 그 어느 여성도 19세기 중반에 스쿠타리의 넓은 병실을 오고 가며 일을 했던 이 여성처럼, 등불을 들고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면서 인간의 고통을 줄이기 위하여 그토록 많은 일을 했던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고 싶은 꿈을 갖도록 해주었던 그녀의 겸손한 미덕 때문에 그

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다. 보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인가를 얻거나 행하더라도 남에게 무엇가를 베풀며 삶을 살라는 것이다.

어느 날 달라스 공항에서 한 남자가 나에게 걸어와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자신의 직업이 의사이며 중앙아메리카로 가는 길이라고 했다. 매년 그는 한달 간 그 곳에 머물면서 무료로 수많은 수술을 해주며,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진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러분은 절망 속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젊음의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다면, 여러분은 두 발을 땅에 딛고 이 현실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빚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이며, 여러분을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겸손하라.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건강과 힘, 여러분의 공적, 여러분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무런 대가도 바라시지 않고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덕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알고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여덟째,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이 세상은 매우 시끄럽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리들이 없을 정도이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소리에서 빠져나와 조용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에게는 인생사를 숙고하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심오한 마음의 생각을 읽고, 거기에 빠져들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들의 삶은 참 바쁘다. 우리는 이 일 저 일로 뛰어 다니고, 학문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고, 금전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지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므로 나의 말을 오해하지 말라. 나는 그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과 시간을 보내야 하고, 사색하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대지를 느낄 수 있고 바다나 숲이나 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할 뿐이다.

나는 아버지가 나이 들어 보이기 시작했을 때의 그 모습을 아직도 생생히 떠올릴 수가 있다. 아버지는 돌담이 있는 집에서 지내셨는데, 그 돌담은 낮은 돌담이어서 날씨가 따뜻할 때마다 아버지는 거기에 가서 앉아 계셨다. 어렸을 적 나는,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몇 시간씩 돌담에 계속 앉아 계시는가에 대하여 무척 궁금해했다. 아버지는 타고난 말재주꾼이자 작가였기 때문에 말하고 쓸거리를 생각하고 사색하고 숙고하셨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연세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안 가리시고 많은 책을 읽으셨다. 아버지는 책 읽는 것을 그만 두지 않으셨다. 사색과 독서를 통하여 아버지는 위대한 모험적 삶을 사셨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교육자이셨기 때문에 두 분의 뜻을 모아서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에 책으로 가득한 큰 도서관을 지

으셨다. 열람실에는 독서하기에 좋은 등불과 우리가 공부하기에 편한 커다란 테이블이 있었다. 나는 어렸을 때 숙제를 하지 않으려고 항상 그 핑계거리를 찾곤 했지만, 책을 읽는 것은 무척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님이 늘 강조하셨던 독서의 중요성이 마침내 나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더니 그 이후로 나는 완전히 독서에 매료되었다. 어느 날엔가 삶의 많은 압박감과 책임감에 눌려지내던 내가 아는 한 남자가 나에게, “좋은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었으면”하고 말을 했었던 적이 있다. 그때 그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있었다. 여러분도 지금 독서할 수 있는 시간 계획표를 만들어서, 읽고 공부하면서 사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갖게되는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중 몇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여러분이 컴퓨터 앞에서 인터넷을 즐기고 비디오 게임을 하거나 TV 앞에서 무의미한 프로그램과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스포츠를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다. 나도 재미있는 축구와 농구 게임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 인터넷과 비디오 게임에 중독되는 것을 보아왔고, 자신들의 생활과 마음에 끊임없이 파고 들어오는 소음과 말에 지배를 받게 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이, 내일이면 잊혀질 게임을 보거나 웹사이트를 한 번 더 돌아다니려고 하다가도 가끔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런 시간에 조금이라도 책을 읽고 사색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다면 그들의 삶은 한층 더 풍요로워지고 보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가끔씩 어두운 밤에 차를 타고 나와, 별을 보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더욱 행복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의 소음에서 빠져 나올 시간을 찾아보아라. 여러분만의 돌담을 찾아서 그곳에서 인생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져라. 여러분이 미래에 꿈꾸는 자아상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경에서는 “너희는 사색을 하며 내가 하나님임을 알도록 해라(시편 46:10).”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

아홉째, 기도하라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 할 수 없다. 나는 기도하는 각계 각층의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 두루 퍼져 있다는 사실과, 여러분들처럼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자이심을 알고 있다.

여러분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며, 여러분 자신도 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할 수 없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은 더욱 더 이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라. 무릎을 꿇고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총에 대하여 감사하고, 마음속의 간절한 바람을 그에게 표현하라. 이 모든 기적은 바로 그가 듣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는 들어주신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가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문이나 의심의 여지도 없다.

이것도 내가 어렸을 때 배운 것이다.

여름동안 우리가 지냈던 과일 농장은 밤이 무척 어두운 시골에 위치해 있었다. 거리 가로등이나 주변을 밝혀 줄만한 그 어떤 시설도 없는 곳이었다. 동생과 나는 자주 집 밖에서 잠을 잤다. 청명한 밤에, 우리는 누워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을 보며 백과 사전에 나왔던 별자리와 그 외 다른 별들을 찾아보았다. 매일 밤마다 북극성을 찾기 위해서 손잡이와 컵 모양의 북두칠성을 찾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별의 불변성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 지구가 돌 때 다른 별들은 밤새 내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과 같은 선상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북극성(North Star)은 ‘북극의 별(Polar Star)’이나 ‘북극별(Polestar)’ 혹은 ‘길잡이 별(Lodestar)’로 알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수세기 동안 선원들은 그들의 항해 길을 찾기 위해서 이 북극성을 이용했다. 그들은 북극성을 보면서 방위를 계산했기 때문에 표지에 없는 대해를 횡단할 경우 빙빙 돌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항해하는 일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 어린 시절의 낭만이 있었기 때문에 북극성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다. 나는, 북극성이 변화의 한 가운데서도 항상 불변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다. 북극성은 내가 항상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는다면 이리저리 움직여서 불안정한 하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닳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바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북극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늘 변하고 때로는 잘못 인도해서 우리를 실망시키기도 하는 이 세상에서, 기도는 불변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화평과 위안과 지혜로 여러분의 앞길을 축복해 줄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안내해 줄 수도 있는 것이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께 우리의 고민과 걱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해야하는지도 배웠다. 그리고 그 후,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깨닫기 시작했던 날이 내 인생에 찾아왔던 것이다.

어릴 때부터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어머니를 격려하셨고, 항상 어머니를 위안하는데 신경을 쓰셨다. 자녀로서 우리들은, 함께 일하고 서로 사랑하고 인정해 주는 부모님을 동등자 혹은 친구로 보았다. 우리는 부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알기에 항상 마음이 편했다.

50세의 나이에 어머니는 암에 걸리셨다. 나는 가족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아버지는 태평양 연안의 최고 전문 의사에게 어머니를 데려가시며 어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게 하시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셨지만 헛수고였다. 결국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비탄에 잠기신 아버지가 LA에서 돌아오셨던 그 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 때 아버지는 기차에서 내리시고 슬픔에 빠진 자녀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우리는 조용히 역 플랫폼에서 관이 내려지는 수화물차로 걸어갔다. 그 날 우리는 아버지가 얼마나 여리신 분인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를 잃은 자식들의 정신적 파멸과 같은 마음의 상처와 상실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고통 없는 평화가 어떤 것

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죽음이 영혼의 끝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때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함께 기도를 했다. 우리는 마음의 위로와 힘과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떠나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어머니가 남겨주신 정신적 유산을 깊이 간직하겠다고 기도를 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치유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함께 기도한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오는 조용한 힘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누구도 혼자서 기도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도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이 꿈꾸는 성공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나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자신과 대화를 나눈 자들의 머리 위에, 지혜와 화평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은 혼자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 기도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나는, 어떤 것을 달라는 간구의 기도보다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소리가 무척 듣기 좋았던 한 남자와 몇 년 동안 함께 일한 적이 있었다.

기도의 놀라운 점은, 기도가 직접적이고, 개인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사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을 축복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의롭고 가치 있는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공부를 도와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의 걱정과 근심을 없애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이 인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찾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중요한 모든 일을 이루게 해 달라고 간구하라.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도와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고 계신다. 절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CBS방송의 60 *Minutes* 라는 프로그램에서 마이크 월레스와 인터뷰할 때, 그는 나에게, “사람들은 당신을 예언자라고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당신과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나는 그에게 예언자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사람은 아니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광풍이 있었지만 주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과 같다. 또한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속에 계시지 않았고, 불이 있었지만 불 뒤에서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만 들려주었던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혜와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자신의 문제에 관하여 여러분에게 말하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시를 내리는 성령의 목소리인 것이다.

조지 워싱턴은 기도의 힘을 믿었던 사람이었다. 포트라는 이름의 그의 한 친구는 1777년 그 혹독했던 겨울 동안 워싱턴 사령관과 그의 젊은 군사들과 함께 벨리 포지 전투에 참여했다. 어느 날 포트는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간절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소리

가 들리는 곳으로 다가갔을 때 그는, 미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그의 군대를 위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후에 포트가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모든 일은 잘 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덧붙여 말했다.

이날 나는 상상치도 못한 일을 목격했소.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전쟁과 종교는 완전 별개라고 생각했었소. 그래서 어느 누구도 동시에 군인과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고 말ियो. 그러나 그 날 봤던 워싱턴은 그런 나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해 주었소.

(마션 라케 워스, 워싱턴의 인생, 아몽크, 뉴욕:샤페, 1986, 147페이지)

기도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고, 여러분에게 삶의 방향과 지표를 제시해 줄 것이다. 또한 기도는, 여러분 혼자만이 이 넓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도록 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내가 이 사실을 확실히 단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무수히 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북극해에서 잠수함 노틸러스호를 탔던 윌리엄 로버트 앤더슨에 관한 글을 읽었던 것이 기억난다. 그는 모서리가 접힌 카드 한 장을 지갑에 넣고 다녔는데, 카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다고 믿는다. 그렇게 때문에, 나는 항상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다.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은 항상 길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시고, 창문을 열어 주시고, 돌아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다고 믿고 있다. 나는, 모든 젊은이들이 아침과 저녁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기도로써 온전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맺음말>

지금의 행복의 시대이다. 기쁨을 느끼고, 친구를 사귀고, 지금의 삶이 가져다줄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누리고 있는 시대이다. 이 작은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된 몇 가지 조언들로서 이것들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것, 이를테면 인기와 부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는 소망들을 만족시켜 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 해 줄 수 있듯이 말이다.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아주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은 이전에 지나갔던 모든 세대들의 후손들로서, 여러분이 받은 몸과 마음의 모든 것들은 부모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다. 여러분은 언젠가 부모가 될 것이고, 과거에 받은 정신적 육체적 유산들을 후대에 전해주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가족의 세대들을 연결하는 고리를 끊지 말라. 그 고리를 밝고 강하게 만들어라. 많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

인 것이다.

여러분은 인생을 즐길 수 있다. 정말 그렇게 지낼 수 있다. 나는 여러분이 재미있게 살고, 삶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이 고상한 척하며 살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여러분이 강하고 활기차게 노래하고 춤추며 웃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내려질 것이다.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여러분 삶의 결실을 맺게 되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지식과 복지를 위해 공헌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충실히 행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을 믿는다. 나는 여러분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바라고, 세상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다음의 것들이 나의 9가지 조언들이다.

첫째, 감사하라

둘째, 지혜로워라

셋째, 열중하라

넷째, 깨끗이 하라

다섯째, 충실하라

여섯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일곱째, 겸손하라

여덟째, 사색의 시간을 가져라

아홉째, 기도하라

이 모든 것들을 지키면서 행한다면, 여기의 이 9가지 조언들은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상당한 몫의 배당금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에게 낮에는 삶의 생기를 더해 주고 밤에는 평화를 더해 줄 수 있고, 번민과 고통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고, 여러분에게 삶의 목표를 가져다주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과 맞는 친구들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여러분을 끌어내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해 줄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여태껏 살아왔던 날들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훨씬 많다.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런 날들은 생산적이고 보람있는 시간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행복한 순간에 꿈꿨던 좋은 꿈들을 현실로 이루어 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개울에 떨어지는 잎사귀처럼 자신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앞으로는 잘 해 보겠다고 결심하라.

한 때 철도의 평면 교차로에는 경고 표지판이 흔했다. 두 개로 교차된 표지판에는 “멈춰라, 주시하라, 들어라.”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것은 기차가 큰 소리를 내며 달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수 년 전 나는 기차를 타고 중서부 지역으로 가던 중이었다. 왼편의 창문 밖을 내다보니 도로와 철로가 나란히 뻗어 있는 가운데, 한 남자아이와 한 여자아이가 탄 차가 기차보다 빠른 속도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다. 그 차는 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앞을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기관차의 경적소리가 들렸고, 기차는 브레이

크가 바퀴를 조이면서 나오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멈춰 섰다.

사람들은 반대편 창 밖을 내다봤다. 거기에는 찌그러진 차 한 대가 있었다. 곧 경찰 차가 몰려왔고, 구급차가 뒤따라왔다. 좀 전에 봤던 바로 그 남자와 여자가 죽은 것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달리던 도로가 철로와 교차된 지점에서 차를 멈추고, 주시하고,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던 것이다.

이 시대를 사는 법은 바로 이 9가지 방법들이다.

시간은 어김없이 흘러갈 것이고, 빨리 지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려준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들겠노라고 스스로 약속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

-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2. 번역서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마쓰모토 야스히로 마쓰모토 아이린 저 · 김정우 역: 「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3. 국외서

-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 Manchester: ST.Jerome Publishing, 1999.
-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New York: Routledge, 1997.
- Schaffner, Christina. *Translation and Quality*.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